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7.20

미 증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와 과매도 이슈로 급등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과도한 하락을 감안 반발 매수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가 부각되자 본격적인 상승. 특히 관련 이슈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인 영향. 여기에 개인 소비 등을 감안 경기 침체 이슈는 과도 했다는 소식도 영향. 이에 힘입어 그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주는 물론 여행, 레저, 항공, 금융, 산업재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다우 +2.43%, 나스닥 +3.11%, S&P500 +2.76%, 러셀2000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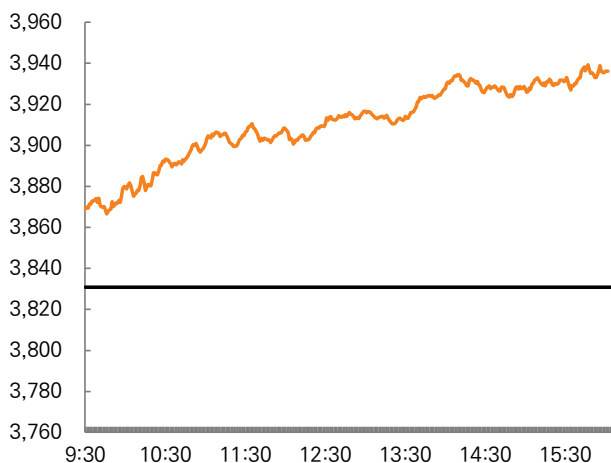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 소식은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약 소식도 영향을 주자 부킹닷컴(+5.52%) 등 여행주와 CDC의 규제 종료 소식에 카니발(+7.36%) 등 크루즈, 델타항공(+4.69%) 등 항공주, 디즈니(+4.09%) 등 레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로 확산되자 알파벳(+4.38%), 메타 플랫폼(+5.11%) 등은 물론 엔비디아(+5.53%), AMD(+5.46%), 인텔(+3.90%)등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 넷플릭스(+5.61%)는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 발표와 예상보다 양호한 가입자수 감소 발표로 시간 외 7%대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2.46%, MSCI 신흥 지수 ETF는 1.6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4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35% 상승. KOSPI는 1%대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러시아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및 과매도 심리가 부각되며 급등 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1%나 급등 한 점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NDF 달러/원 환율이 1,306.43원을 기록해 달러/원 환율이 8원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강세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대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을 감안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 KOSPI 기준 2,400pt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물	Close	D-1(%)	지수종락물	Close	D-1(%)
KOSPI	2,370.97	-0.18	상해종합	3,279.43	+0.04
KOSDAQ	782.33	+0.72	홍콩항생	20,661.06	-0.89
DOW	31,827.05	+2.43	베트남	1,178.33	+0.16
NASDAQ	11,713.15	+3.11	유로스톡스 50	3,587.44	+2.15
S&P 500	3,936.69	+2.76	영국	7,296.28	+1.01
캐나다	18,937.71	+1.84	독일	13,308.41	+2.69
일본	26,961.68	+0.65	프랑스	6,201.22	+1.7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러시아 가스공급 ② 견고한 소비 ③최악의 투심

러시아가 지난 11일 연례 정비를 이유로 독일 등에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하자 유로존 국가들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 당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며 한 때 1달러를 하회하는 등 패리티가 무너지기도 했고 주식시장도 15일 미국의 소비지표 개선에 따른 강세 이전인 14일까지 2~5% 내외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 이슈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었음. 그런데 예정대로 노드스트림 1 수송관의 정비가 끝나는 21일 이후 천연가스 수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짐. 이 영향으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1% 내외 급등 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 증시 또한 유로스톡스 500이 2%대 강세를 보이는 등 안도렐리가 이어지자 미 증시도 본격적인 상승 확대

여기에 여타 금융업체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가계 재정이 견고하다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에 따른 월간 지출 증가로 일부 소비를 줄일 것으로 전망해왔고, 실제 관련 기업들이 이를 발표해 왔음. 그렇지만, 지난주 소매판매 등을 통해 이를 완화. 여기에 주요 금융섹터들의 실적 발표를 분석한 이후 핵심 대출 및 예금 활동이 견고하다는 점이 부각되자 경기침체는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특히 BOA의 카드 지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JP모건의 카드 상각율이 지난해 2.24%에 비해 감소한 1.47%에 그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임. 이는 경기 침체 이슈가 과도하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임

한편, BOA의 7월 펀드매니저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비관주의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전해짐. 펀드의 현금 보유 비율이 지난달 5.6%에서 6.1%로 상승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최악의 수준을 보임. 이 결과 현재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는 물론 2001년 IT 버블 당시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인데 경기 위기 상황도 아닌데 과도하다는 평가가 부각되게 만든 요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의 피크’로 해석하며 반발 매수 심리가 부각돼 그동안 하락을 주도했던 기술주 중심으로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만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물론 달러 강세 등으로 가이던스 하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 마진율은 지난 분기 기록한 12.9%보다 낮은 12.7%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11%대 초반을 기록했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결과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 여기에 12개월 Fwd PER도 10년 평균인 17배를 하회한 15.8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과매도 기대 심리도 높음.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향후 시장은 하락 요인 보다는 상승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반등 기대 심리도 높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61% 상승

러시아 가스 공급 재개 소식은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를 완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약 소식도 영향을 주자 부킹닷컴(+5.52%) 등 여행주와 CDC의 규제 종료 소식에 카니발(+7.36%) 등 크루즈, 델타항공(+4.69%) 등 항공주, 디즈니(+4.09%) 등 레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광고 수익에 대한 기대로 확산되자 알파벳(+4.38%), 메타 플랫폼(+5.11%) 등은 물론 엔비디아(+5.53%), AMD(+5.46%), 인텔(+3.90%) 등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 물론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된 점도 기술주 강세 요인

트위터(+2.81%)는 일론 머스크와의 M&A 관련 긴급재판 관련 승소 판결 소식에 상승. 테슬라(+2.07%)는 한 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가상 자산 시장의 급등이 지속되자 상승 전환. 반도체 칩의 외국 의존도가 높아 칩 부족에 따른 우려가 여타 국가에 비해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자 니오(-3.07%), 샤오펑(-3.76%), 리오토(-4.72%)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부진. IBM(-5.25%)은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 약 35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하자 하락. J&J(-1.46%)도 견고한 실적 발표에도 달러 강세로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0.71%)도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기도 했으나 결국 상승 전환. 넷플릭스(+5.61%)는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 발표와 예상보다 양호한 가입자수 감소 발표로 시간 외 7%대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93	대형 가치주 ETF (IVE)	+2.35
에너지섹터 ETF (OIH)	+3.67	중형 가치주 ETF (IWS)	+2.86
소매업체 ETF (XLY)	+3.06	소형 가치주 ETF (IWN)	+3.39
온라인소매 ETF (EBIZ)	+3.15	대형 성장주 ETF (VUG)	+3.19
금융섹터 ETF (XLF)	+3.00	중형 성장주 ETF (IWP)	+3.34
기술섹터 ETF (XLK)	+3.05	소형 성장주 ETF (IWO)	+3.7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05	배당주 ETF (DVY)	+1.84
클라우드 ETF (CLOU)	+2.70	신중국 고배당 ETF (DEM)	+1.02
미국 리츠 ETF (VNQ)	+2.59	신중국 저변동성 ETF (EEMV)	+1.18
주택건설업체 ETF (XHB)	+3.37	미국 국채 ETF (IEF)	-0.46
바이오섹터 ETF (IBB)	+2.57	하이일드 ETF (JNK)	+1.36
헬스케어 ETF (XLV)	+1.70	물가연동채 ETF (TIP)	-0.10
곡물 ETF (DBA)	-0.6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8
반도체 ETF (SMH)	+4.57	모멘텀 ETF (MTUM)	+1.7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통신	194.84	+3.64	+2.50	+6.26
산업재	756.29	+3.58	+2.73	+4.90
에너지	551.46	+3.16	+5.00	-0.75
소재	468.41	+3.11	+2.46	-0.08
경기소비재	1,174.62	+3.09	+5.91	+10.27
IT	2,363.75	+3.07	+4.54	+8.71
금융	542.19	+3.07	+3.12	+5.82
부동산	261.31	+2.84	+1.86	+7.44
헬스케어	1,511.68	+1.80	+0.72	+8.50
필수소비재	758.75	+1.08	+0.66	+6.59
유틸리티	351.87	+0.68	-0.95	+7.5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KOSPI, 2,400pt 도전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46%, MSCI 신흥 지수 ETF는 1.6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6.43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35% 상승. KOSPI는 1%대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애플의 고용 및 지출 축소 발표로 하락한 미 증시 여파로 약세를 보임. 그렇지만,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자 관련 종목 중심으로는 건조한 모습을 보여 하락은 제한. 특히 달러/원 환율이 호주 달러 등 여타 신흥국 환율의 강세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장중 매도세가 약화된 점은 긍정적. 이에 힘입어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KOSPI는 0.18% 하락했으나 KOSDAQ은 0.72%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가 부각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특히 이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1%나 급등한 점은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의 강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유로화 강세에 기반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NDF 달러/원 환율이 1,306.43원을 기록해 달러/원 환율이 8원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한국 증시 강세 요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대 상승 출발 후 외국인 수급을 감안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 KOSPI 기준 2,400pt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착공 허가 건수 예상 상회

미국 6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159.1만 건)나 예상(158.8만 건)을 하회한 155.9만 건을 기록. 착공 허가 건수는 지난달 발표(169.5만 건)를 하회한 168.5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166.6만 건을 상회해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유입되며 부진한 지표 결과를 희석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미국 착공 건수 둔화 여파로 2분기 GDP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5%에서 -1.6%로 하향 조정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유로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로 강세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5월 원유 수출이 하루 750만 배럴에 그치며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지속. 다만 5월 생산량은 1,053만 8천 배럴로 2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상승폭은 제한. 특히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아시아 게임 연기 소식 등 코로나 이슈도 상승 제한 요인.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공급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달러화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유로화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재개 가능성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목요일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25bp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50bp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도 강세 요인. 파운드화는 영국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가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주택 착공 건수가 부진했음에도 허가 건수는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자 최악은 벗어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더 나아가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여기에 주요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이 견고하다는 발표를 하자 향후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단기 물의 상승폭이 장기물 보다 컸음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소폭 상승에 그침.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며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하락. 곡물은 다음 주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물 일부 해갈에 따른 작황 기대로 하락. 특히 옥수수의 경우 주간 작황 보고서에서 작황이 안정적이라는 소식으로 하락폭이 컸음.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2% 하락, 철근은 0.16%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4.22	+1.46	+8.62	Dollar Index	106.722	-0.60	-1.25
브렌트유	107.35	+1.06	+7.95	EUR/USD	1.0225	+0.81	+1.87
천연가스	7.26	-1.82	+19.15	USD/JPY	138.23	+0.07	+0.99
금	1,728.10	-0.03	-0.96	GBP/USD	1.2002	+0.41	+0.95
은	18.71	-0.85	-1.47	USD/CHF	0.9690	-0.88	-1.34
알루미늄	2,389.00	-1.55	+1.23	AUD/USD	0.6900	+1.29	+2.10
전기동	7,277.50	-2.01	-1.04	USD/CAD	1.2871	-0.82	-1.16
아연	2,948.50	-1.91	-2.24	USD/RUB	56.3608	-3.91	-8.73
옥수수	595.25	-2.54	+1.49	USD/BRL	5.4214	-0.29	-0.31
밀	812.25	-0.12	-0.31	USD/CNH	6.7478	-0.18	+0.19
대두	1,358.25	-1.50	+1.23	USD/KRW	1,313.40	-0.30	+0.10
커피	216.50	+0.60	+5.43	USD/KRW NDF1M	1,306.43	-0.94	+0.0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023	+3.73	+5.41	스페인	2.481	+3.80	+25.40
한국	3.245	-3.50	-9.00	포르투갈	2.393	+2.90	+15.80
일본	0.239	+0.20	-0.30	그리스	3.469	-1.10	-0.80
독일	1.277	+6.20	+14.50	이탈리아	3.180	+4.30	+21.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